

## 최인욱 신문연재 중편소설 연구

진 선 영\*

### 차 례

- |                                     |                                   |
|-------------------------------------|-----------------------------------|
| I. 들어가며                             | IV. 반(反) '그레샴의 법칙', <청춘은<br>아름답다> |
| II. 오해(誤解)와 누락(漏落) 사이               | V. 나오며                            |
| III. 반(反) 외설소설(猥褻小說), <별<br>레떡은 장미> |                                   |

### 국문초록

한국 현대문학은 상당한 문학적 축적과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었음이 주지의 사실이지만 풍성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락되고 결실(缺失)된 텍스트들이 존재한다. 이에 문학 연구의 편향성에 대한 반성과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결실된 텍스트를 복원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취지를 목적으로 최인욱의 1950년대 신문연재 대중소설을 연구하였다.

<별레떡은 장미>는 1953년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다. 이 소설은 신체의 노출이나 육체적 행위를 서사의 표면에 배치하고 공포, 범죄, 광기 등과 같은 사회동향에 의해 방출된 무질서한

\* 이화여자대학교

힘들을 조합하여 선정성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일탈의 영역은 보편적 가치 즉 도덕성의 회복을 통해 제거됨으로써 강렬한 멜로드라마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성적인 것의 추구와 파격적인 세대 설정을 통해 독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지만 이면에는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타매(唾罵)하는 새로운 교훈의 서사를 발견할 수 있다.

<청춘은 아름답다>는 1954년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신문』에 발표된 중편소설이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으로 정리된다. 악화는 학교부정과 사회부정을 저지르는 구세대를, 양화는 영리와 기지, 논리적 이성으로 이에 맞서는 청춘세대, 신세대를 대변한다. 세대의 속성을 대변하는 가치와 그것의 상대적 대립을 통해 전후세대의 가치혼란을 형상화하고 각각의 세대는 일정한 세력과 영향력을 지니면서 사회전반에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작품에서는 세력의 균형이 신세대로 약간 기울어 있는 듯 보이지만 젊은 세대 내에 존재하는 양가성을 보여줌으로써 균형을 조정한다.

최인욱의 이 두 작품은 작가의 개인적 이력으로 볼 때 초기소설에서 중기소설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표된 것으로 향후 장르적 변화를 예고한 작품이자 주제의식의 성숙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두 작품은 1950년대 전후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세대소설을 넘어서 사회비판을 통해 휴머니즘을 고취하는 사회소설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제어 : 신문소설, 대중소설, 외설소설, 선정소설, 멜로드라마, 그레샴의 법칙, 풍속, 세대논쟁, 아프레 걸

## I. 들어가며

한국 현대문학은 근·현대사의 격동 속에서도 지난 백여 년 동안 상당한 문학적 축적을 이루었다. 문학이 오롯이 문(文)/학(學)으로서만 존재할 수 없었던 현실 속에서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고, 나름의 역할로 시대를 대변한 한국문학은 이제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현대문학의 풍성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락되고 결실(缺失)된 텍스트들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문학의 엄숙주의와 보수주의적 성격 때문일 터인데 문학 정전에 대한 이상화와 그에 반하는 주변부 문학에 대한 무관심은 문학 연구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최근 이러한 문학 연구의 편향성에 대한 반성과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로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결실된 텍스트를 복원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시대적 임무를 문학적으로 수행한 이름 잃은 작가들을 복원하는 작업은 단지 잊히고 왜곡된 무명의 작가를 발굴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문학사를 풍요롭게 하는 제반작업이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취지를 목적으로 최인욱의 1950년대 신문연재 대중소설을 연구하고자 한다. 국문학의 전체 연구 틀 안에서 볼 때 시기적으로는 1950년대, 장르적으로는 대중문학 텍스트의 발굴과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는 전쟁으로 인한 자료의 결실, 신문이라는 매체적 특성, 연재소설의 낮은 문학적 성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이 1950년대에 대응하는 당대의 문학적 반응이라면 연구의 가치는 충분하리라 사료된다. 더불어 최인욱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고 발굴 작품을 전체 작품과의 통시성 속에서 고찰해냄으로써 새로운 작가 발굴의 의미를 덧붙이고자 한다.

1950년대 대중문학은 당대 사회 해석과 이해의 바로미터로서 대중적 즐거움을 통해 독자를 위안하고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당위적으로 서사화하였다. 현대문학의 축적된 결실 안에서 1950년대 대중문학의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는 작업은 한국 현대문학의 결과 색을 풍부히 더하는 기반 작업이 될 수 있다.

## II. 오해(誤解)와 누락(漏落) 사이

작가 최인옥은 1938년 약관의 나이로 등단한 이래 작고한 1972년까지 중·단편소설 83여 편, 장편소설 19편, 수필 20편, 평론 18편 등 과히 적지 않은 수의 작품을 발표하였고 편저·역본을 포함한 단행본을 22여 편이나 출간하였다. 35여 년의 짧지 않는 문단생활 동안 한국적 토속성을 바탕으로 한 깊이 있고 서정적인 단편소설 외에 연애소설, 탐정소설, 아동문학, 역사소설 등 장르문학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선보였다.<sup>1)</sup> 작가는 당대의 세대적 소재를 활용하여 표현의 다양성을 꾀하였지만 강렬한 도덕적 인간상에 대한 믿음과 휴머니티를 통해 일관된 세계관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장르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과 당대를 바라보는 통찰력 있는 주제의식은 최인옥 작품에 대한 새롭게 보기를 요한다.

하지만 문학사에서 최인옥의 이름을 확인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sup>2)</sup> 왕성한 문단 활동에 견주어 작가의 작품을 발견하는 것이 요원한 까닭은 그만큼 작가가 정통 문학사에서 비껴서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

1) 줄고, 「전통적 세계 지향과 도덕적 인간학」, 『겨레어문학』 제48집, 겨레어문학회, 2012, 223-247쪽.

2) 김윤식과 정호웅이 공저한 『한국소설사』에서는 최인옥을 공군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중군작가단의 한명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의 작품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재선의 『한국소설사』에는 주제론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최인옥의 작품 <개나리>를 인용하고 있지만 작품에 대한 해설 없이 한 부분만을 인용하여 작품 연구로 보기 어렵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1993, 101쪽.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51쪽.

이재선, 『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541쪽.

반면 문학사에서 소외된 작가의 이름은 신문연재 소설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한국신문소설사』에 보면 최인욱의 이름을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나마 작가의 이력이 소개 되어 있고 대표작으로 『林巨正』에 대한 당대의 평가가 수록되어 있다.<sup>3)</sup> 신문연재 소설사에 기록될 만한 주요 작품의 서지 정보와 당대 평가를 기록한 이 연구사에서 작가의 이름을 확인하는 작업은 유의미한 지점이다. 그만큼 작가의 당대적 위치와 인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비단 이것만은 아니다.

1939년에 등장한 하남 최인욱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에서 태어나 해인 불교전문학원 고등과를 나온 후 1938년 단편 ‘시들은 마음’이 《매일신보》 신춘문예에 입선하고 이듬해 ‘산신령’이 당선, 같은 해 ‘월광취적도’(月光吹笛圖) 《조광》를 발표하여 동양적인 토속 세계와 서정을 주조하였다.<sup>4)</sup>

인용된 부분을 보면 최인욱의 등단작은 <시들은 마음>이고 작가의 초기 작품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이 <월광취적도>이다. 하지만 1938년 발표 당시 신문과 잡지를 확인해 본 결과 등단작과 초기 대표작의 제목이 모두 오기(誤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인욱의 문단 등단작은 <시들은 마음>이며 초기 대표작은 <월하취적도>(月下吹笛圖)이다. 최인욱의 작품을 선집이나 전집의 형태로 출판한 단행본의 작품목록에는 대부분이 <시들은 마음>으로 오기되어 있다. 이는 발표 당시의 작품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오기된 작품 제목을 계속 되풀이해 재록(再錄)한 결과여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기본적인 서지 사항이 이러할진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나 비평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원영이 집대성한 『한국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를 보면 최인욱의

3) 서광운, 『한국신문소설사』, 해돋이, 1993, 237쪽.

4) 서광운, 앞의 책, 236쪽.

작품 활동은 가히 방대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최인옥은 1950년대에 신문연재소설을 가장 많이 쓴 작가 중의 하나이다. 1950년대 장안의 최고 인기 작가였던 정비석이 15편의 연재소설을 집필하였는데 최인옥은 그보다 많은 신문소설을 연재하였다.<sup>5)</sup> 특히 최인옥은 『서울신문』에 소설을 가장 많이 연재한 작가로 기록되어 있다. 1945년 11월에 창간된 『서울신문』이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이후 대중문학에 끼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최인옥의 위치를 재평가하여야 하는 당위성은 더욱 커진다.<sup>6)</sup>

한원영은 최인옥의 대표작으로 1962년 발표한 역사소설 『林巨正』을 꼽고 있다.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林巨正’의 집필 동기와 당대 인기를 상세히 기록하였고<sup>7)</sup> 당대 비평가들의 평가를 빼곡히 수록하였다. 당대 최고의 역사소설 작가였던 박종화는 ‘역사소설의 신풍을 개척한 대하소설’로, 양주동은 ‘수호지를 능가하는 대작’으로, 정비석은 ‘교양과 흥미로 천하일품’이라고 극찬하였다. 당대의 평가에 발맞추어 『林巨正』 연재 이후 최인옥은 역사소설 집필에 몰두하고 이러한 영향으로 홍명희와 비견될 만한 ‘임걱정’의 작가로, 전쟁 이후 대표적인 역사·대하소설가로 후대에 기억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최인옥이 역사소설가로만 기억되고 기록되는 것에

- 
- 5) 1950년대 신문에 소설을 가장 많이 쓴 작가로는 김광주가 19편으로 가장 많으며 최인옥 16편, 정비석 15편, 박용구 14편, 장덕조 13편, 곽하신 13편, 박영준 12편, 김말봉 11편 순이다. 한원영, 『한국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하), 국학자료원, 1999, 722쪽.
- 6) 최영석, 「1950년대 한국 신문의 성격에 관한 연구」, 『원우론집』 제16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9, 209-236쪽.  
김동선, 「해방 직후 『매일신보』의 성격변화와 『서울신문』의 창간」,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3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155-200쪽.
- 7) 최인옥은 1962년 10월 1일부터 1965년 3월 20일까지 ‘林巨正’을 연재했다. 신문사 측에서는 ‘삼국지’와 ‘수호지’를 얼버무린 혼합형의 작품을 요구했으나 ‘林巨正’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이 연재되자 독자들의 인기는 대단하여 가판에서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이 소설의 연재가 끝나자 가판의 신문 부수는 2만부나 줄었다는 것이다. ‘林巨正’으로 재미를 본 서울신문은 작가의 역량을 인정하고 역사소설의 집필을 청탁했다. 한원영, 앞의 책, 186쪽.

반대한다. 한 작가에게 기억될 만한 대표작이 있다는 것은 작가적 명예인 반면 족쇄이기도 하다. 작가의 문학작품 전체를 소급하여 오독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인욱이 대하·역사 소설의 첫 번째 시도자이자 완성자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러한 경향으로 나아가기 전 예비적 이력을 축적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인욱만의 독특한 역사소설을 구성해 낼 수 있었다.

최인욱의 작품 활동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 소설은 등단한 1938년부터 1949년까지 발표한 것으로 한국적 토속성을 바탕으로 한 비극적 연애소설이 주를 이룬다. 중기 소설은 초기 소설의 공간적 배경과 반대되는 도시적 삶의 세대와 전쟁 후 변화된 인간상을 보여준다. 후기 소설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50년대 후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쓰여진 역사소설이다.

작가의 문단 이력으로 볼 때 최인욱은 1930년대 후반에 등단하여 작가의 나이 30대인 1950년대에 가장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하였다.<sup>8)</sup> 1960년대 이후 역사소설로 완전히 전향한데 반해 이 시기 작가는 다양한 현실 소재를 수용한 다작의 작품을 발표하고 대중연애소설가로 큰 인기를 얻었다. 젊은 세대의 연애갈등을 서사의 축으로 다양한 세대와 풍속을 담아내는 최인욱의 신문연재 대중소설은 ‘사랑’을 통해 당대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고 시대적 희망을 서사화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 최인욱 소설에 관한 연구는 일천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1950년대 신문에 연재된 최인욱의 중편소설을 발굴하고자 한다. 이 시기 최인욱의 신문연재 중편소설의 발굴은 한국 전쟁기 신문소설의 발굴이라는 목적과 궤를 함께 한다. 한국 전쟁기 신문연재 소설은 소설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1950년대 문학작품의 전모를 밝히는데 의미있는 지점을 마련할 것이다.<sup>9)</sup> 지금까지 1950년대 신

8) 전체 100여 편에 이르는 작품 중 이 시기에 발표한 단편소설은 50여 편 정도이고 신문연재 장편소설은 10여 편에 이른다.

9) 한명환, 「한국 전쟁기 신문소설의 발굴과 문학사적 의의」, 『현대소설연구』 20, 현

문연재 소설은 소설의 미학적 완성도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문단 내외적으로 외면을 받아왔다. 전쟁으로 인해 현실을 거리화 하는데 실패한 이 시기의 문학은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현실과 삶에 정직할 수 있었다. 전쟁에 대한 강박과 답답한 현실, 장담할 수 없는 미래와 실존의 불안, 이 모든 착잡함을 1950년대 신문소설은 거울같이 투영하고 있으며 그 해답을 무겁지 않게, 명랑하고 즐겁게 풀어내는 것이 이 시기 신문소설의 서사화 방식이다.

최근 1950년대 작가와 작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인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시작단계에 있다. 그의 단편소설이 발굴 과정에 있고, 신문연재 장편소설은 출판사를 바꾸어 꾸준히 재출판 되고 있다.<sup>10)</sup> 본고에서는 현재 연구에서 누락되어 있는 중편소설을 발굴 하고자한다. 단편, 중편, 장편을 형식과 내용적 특성에 맞게 능히 다루었다는 사실은 작가는 아무리 평범한 소재나 제재를 가지고도 소설을 무난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sup>11)</sup>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주제의식으로 다양한 장르 변조를 보여주며 작가의식을 펼쳐 보인 최인욱의 작품이야말로 한국 문학사에서 작가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한 지점이자 성실성을 반증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중편소설은 <별레먹은 장미>, <칭춘은 아름답다> 등 2편이다. 선정된 두 편의 중편소설은 최인욱의 문학적 특성을 변별할 수 있는 대표 중편이자 당대의 인기작 들이다. 최인욱의 중편소설은 단편소설의 서정적이고 비극적인 미학을 이어받고 장편소설의 세태적 관심과 휴머니즘적 주제의식을 매개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두 편 모두 『서울신문』의 ‘단편 릴레이’

대소설학회, 2003, 128-130쪽.

10) 방금단, 「작가 최인욱의 생애와 작품세계」, 『돈암어문학』 24집, 돈암어문학회, 2011, 221-250쪽.

최인욱, 『최인욱 소설 선집』, 진선영 엮음, 현대문학, 2012, 442쪽.

11) 조연현, 「해방 후 창작계의 제양상(2)」,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1957.8.20.



코너에 발표되었다는 점이다. 고정적으로 매회 연재되던 장편소설과 더불어 작가에게 발표 지면을 마련해주고 신문의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진 ‘단편릴레이’ 코너<sup>12)</sup>는 짧게는 5회, 길게는 60회까지 분량에 한정이 없었다. 앞선 두 편의 중편소설들이 ‘단편 릴레이’ 코너에 발표되기는 했지만 단편소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50년대에는 중편소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바 원고지 300매 이상에 해당하고, 서사의 일관성을 추동하는 주요 플롯과 이야기를 풍요롭게 하는 부차 플롯의 삽입 등으로 볼 때 이 작품들은 중편소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Ⅲ. 반(反) 외설소설(猥褻小說), 〈벌레먹은 장미〉

최인욱의 중편소설 〈벌레먹은 장미〉는 1953년 8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다. 연재 당시의 높은 인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인기로 연재가 끝나자마자 세문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당대 청소년들이 이 소설을 ‘성 바이블’처럼 여겨 몰래 돌려 읽었다는 일화나 오랜 기간 동안 작품의 저자가 ‘방인근’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다는 에피소드, 이승훈, 김철 등이 중·고등학교 시절 대본점에서 이 책을 빌려 읽으며 한국소설에 입문하였다는 일화 등은 〈벌레먹은 장미〉의 당대적 인기를 가늠케 한다. 작품의 제목이 주는 선정적 은유로 인해 이후 ‘벌레먹은’ 시리즈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결국 ‘에로소설’로 판금되기까지

12) 1950년대 신문은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재소설을 특화시켜 배치한다. 소설 가운데 단편과 장편의 비중은 신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서울신문』은 해방기부터 특화시켜 기획한 ‘단편릴레이’가 지속돼 1952. 1. 1~28(김동리 외 4명), 1953. 7. 11~12. 28(강신재 외 4명), 1956. 3. 4~12. 31(유주현 외 6명) 등 3차례, 『조선일보』는 ‘단편릴레이’란 타이틀로 1955. 7. 12~9. 13(최인욱 외 4명), 『동아일보』는 1956. 5. 3~6. 30(곽화신 외 4명)에 각각 릴레이 형식으로 소설이 연재된 바 있다.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 29집, 반교어문학회, 2010, 281쪽.

하였다.<sup>13)</sup>

<별레먹은 장미>가 발표된 1953년은 작가에게 의미있는 해이다. 첫 번째 단편(『저류』, 흥국연구협회), 중편(『별레먹은 장미』, 세문사) 장편(『행복의 위치』, 백조사) 소설집을 간행하였고 1948년 발표한 <개나리> 이후 이러타할 작가적 명성을 올리지 못하다가 이 작품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다.

<별레먹은 장미>는 최인욱의 작가적 이력에 변화를 예고한 작품이자 주제의식의 성숙을 보여준 중편 소설이다. 초기 소설에서 중기 소설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표된 이 작품은 초기 소설의 낭만적 토속성과 감상적 분위기를 일시에 떨치고 도시적 퇴폐성과 환멸성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독자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소설을 지배하는 ‘불량스러움’은 초기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예감케 하고 본격적으로 소설을 지배하게 되는 한국전쟁 후의 변화된 시대상이 공간의 변화를 체험하는 여성인물을 통해 구현된다. 반면 배경의 급격한 전환, 즉 변화된 시대의 세대적 반영에도 세계를 인식하는 작가의 시선, 비극적 낭만성과 휴머니즘은 작품의 주제의식으로 오롯이 견지된다. 이것이 이 시기 작가에게 대중연애소설과 전시소설<sup>14)</sup>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이다.

<별레먹은 장미>의 높은 인기와 그에 버금가는 질타는 마치 동일한 신문 지면에 3개월 후에 발표된 『자유부인』을 떠올리게 한다. 『자유부인』은 1950년대 최대의 문체작이자 신문 연재소설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자유부인』은 그 화려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연재 당시 엄청난 비난과 구설에 시달렸다. <별레먹은 장미>는 전후 사회의 변화된 일상과 가치관을 한 젊은 부인의 수난을 통해 그려내면서 『자유부인』의 엄청난 성공을 예비케 한 작품이다.

13) 역사비평편집위원회,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2』, 역사비평사, 2009, 261쪽.

14) 최인욱은 공군부대에 소속된 중군작가단으로 활동하였는데 작가의 개인적 경험은 많은 단편소설을 통해 형상화된다. 최인욱의 전시소설은 뚜렷한 목적을 갖는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체적 특질과 조화하여 높은 문학성을 획득하였다.

남편의 징병으로 결혼한 지 일 년 만에 독신이 된 홍삼매는 남편 없는 외로운 시집살이와 그리움에 대구로 피난 가서 사는 언니의 편지를 받고 대구로 향한다. 이웃집의 트럭을 얻어 타고 가던 중 대전에서 특무대에 있다는 한 청년의 불신검문을 받고 시민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에게 끌려가 검탈을 당한다. 그러나 사실 그는 군복 바지를 주워 입고 특무대 흉내를 내 시민증 없는 여성을 골라 유린하는 불량배였다. 대구에 도착한 삼매는 나날이 허영의 도수가 높아지고 호화로운 삶에 눈이 뒤집힌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자신의 삼촌과 동업으로 양복점을 경영하던 이창근을 만나 그의 주선으로 다방 레지로 취직하게 된다.

미혼으로 속이고 장미다방의 대표 레지가 된 삼매는 연인 인섭의 돈으로 사치한 삶을 살지만 미군물자를 훔쳐 되파는 인섭이 징병기피자로 외출이 어려워지고 돈이 궁해지자 곧 실증을 느낀다. 아버지뻘 되는 창근이 양복을 빌미로 접근하자 이후 그의 연인이 된다. 인섭은 삼매의 변심을 예감하고 권총 한 자루를 구입한다. 인섭과 창근을 저울질 하던 삼매는 인섭이 창근의 양복점을 터는데 동참하게 된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삼매의 변심으로 인섭이 체포되고 창근의 의심을 받게 된다. 창근의 의심, 경찰의 압박,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미리(인섭 누나의 친구, 양공주)의 뒤통수로 사면초과에 빠진 삼매에게 불구자가 된 남편이 제대하여 찾아온다. 과거는 불문에 불일 터이니 함께 서울로 돌아가자는 남편의 청을 거절한 삼매는 행복했던 신혼 시절을 떠올리며 수면제를 먹고 자살한다.

표면적 즐거리만 보더라도 상당히 자극적이다. 여학교 출신의 젊은 부인이 우연한 사건으로 몸을 유린당하고 그로 인해 겪게 되는 몰락의 과정은 당대 독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별레떡은 장미>에 대한 당대 사회의 충격과 그 여파는 이 소설이 ‘음화반포죄’로 내사 받은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sup>15)</sup> 서사의 기표는 당대 다른 소설에서

15) 10일 상오 검찰은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일부 저속한 소설에 대한 내사에 착수

는 볼 수 없는 선정적인 언어, 행위와 장면을 빼곡이 기록하고 있다. 이 소설의 외설 시비, 음란물 판정 등은 주요 플롯의 파격적 도발성을 바탕으로 디테일한 세부 묘사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정성이야말로 작품의 인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입소문을 통해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별레먹은 장미>의 선풍적 인기의 요인이 된 선정성은 반대로 소설의 질을 가늠하는 근거가 되었다. 전면화 된 선정적 장치로 외설 소설, 에로 소설, 음란 소설로 낙인찍히게 되었고 작가 스스로도 작품의 원저자임을 밝히길 꺼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선정성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선정성의 사전적 의미는 ‘정욕(情慾)을 자극하여 일으키는 것’이지만 미디어에서 표현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선정성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끌어 당기는 흥미 본위의 내용’이다. 이는 인간의 전반적인 감정차원에서의 흥분을 조작하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에로와 외설과 변별되어야 함은 선정성이 차용되는 맥락적 차원의 고려이다. 그러므로 대중소설의 선정성에 대한 해석은 성적인 요소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와 도덕적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sup>16)</sup>

베스트셀러의 요인에 대해 정의한 모트(F. Mott)에 따르면 선정주의(sensationalism)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망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의 깊고 섬세한 감정을 동요시킬 수 있는 내용적 장치라고 하였다.<sup>17)</sup> 대중

---

했다. 검찰은 소설 <처녀성>(허문녕 작), <별레먹은 장미>(최인욱 작), <밤에 피는 꽃>(방인근 작) 등 3편을 음화 등의 반포 위반 작가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저속한 소설내사』, 『경향신문』, 경향신문사, 1965.4.10.) ‘음화 반포죄’란 음란한 도서, 도화, 기타 물건을 판매하거나 전시, 상영한 자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죄이다. 실제 이 사건으로 작가가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소설을 대하는 당대 독자와 사회의 반응을 유추할 수 있다. 더불어 <별레먹은 장미>가 1953년에 발표된 작품임에도 1960년대 발표된 작품과 더불어 여전히 사회적 파급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 전희락, 「선정성 시비 무엇이 문제인가」, 『저널리즘비평』 31호, 한국언론학회, 1999, 83-90쪽.

17) 엘리스 페인 해케트·베르너 파울슈티히, 『베스트셀러의 진실』, 이임자 편역, 경

소설의 선정성은 단순히 성적인 것에 대한 병적인 집착만을 드러내지 않는다. 대중소설의 선정성은 자기 목표로서의 감각 즉 감상성, 야만성, 관능성, 폭력성 등을 포함한다.<sup>18)</sup> 선정주의는 보다 많은 독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시도되는 형식과 내용상의 기교, 노력, 과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폭넓은 용어라 할 수 있다.<sup>19)</sup>

이 소설은 선정적 장치, 즉 신체의 노출이나 육체적 행위를 서사의 표면에 적절히 배치하고 공포, 범죄, 광기 등과 같은 사회동향에 의해 방출된 무질서한 힘들을 조합하여 선정성을 극대화한다. 군복바지를 주워 입고 특무대 흉내를 내는 불량배, 빙자 간음, 병역 기피, 도둑질, 성매매, 폭행, 살인 모의, 자살 등 당대의 추악한 일면을 기표화하는 다양한 장치들은 한국전쟁 직후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가감(加減) 없이 보여준다.

선정적 사건들은 숨어 있거나 알 수 없던 것들을 보이게 만듦으로써 사회 구조를 구체화시키는 힘이 있다.<sup>20)</sup> 당대 사회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사실들은 대개 사회의 밑바닥에 팽배해 있으나 표면화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들인 경우가 많다. 선정소설은 이러한 문제를 언어화하여 공론의 장에 배치한다. 이것은 선정소설을 예술적 가치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잣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준거가 된다. 선정소설이 지닌 당대적 현재성과 보편성에 대한 봉사는 선정소설의 기능성을 부각한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 군상들이 직조하는 사회적 불의와 세태는 1950년대 당대의 사회적 적시성을 명징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소설은 사회적 ‘문젯거리’가 되었을망정 친한 ‘농담거리’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었다.

서울-대전-김천-대구로 이어지는 공간의 이동은 ‘삼매’의 전략의 경

인문회사, 1998, 94-95쪽.

18)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8, 44쪽.

19) 강준만, 「선정주의란 무엇인가」, 『대중문화의 결과 속』, 한샘출판사, 1997, 173-178쪽.

20) 장정희, 『선정소설과 여성』, L.I.E., 2007, 10-13쪽.

로이지만 한 공간을 거쳐 념으로써 삼매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서울에서의 삼매는 소박하지만 건실한 남편과 의좋은 시부모를 모시고 알뜰히 살림을 꾸려나가는 가정부인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질병으로 정실한 가정부인의 삶은 흔들리고 첫 번째 변화를 겪게 된다. 대전에서의 성적 체험은 삼매에게 잊고 있었던 육체적 쾌락을 눈뜨게 한다. 늘 남편보다 성욕이 강했던 삼매는 점잖은 남편의 행동에 불만을 느꼈다. 남편이 질병가고 2년간의 독수공방과 불량배에게 당한 겁탈은 심리적인 수치심은 주었을망정 ‘한편으로는 사나이의 촉감이 이상한 자극’이 되었다. 대전의 공간이 삼매에게 여성적 쾌락을 발견하게 하였다면 김천에서의 경험은 정신적 변화를 예고한다. 대구를 향하던 중 밤이 되어 이르게 된 김천 여관에서 여주인이 조금 한 포대에 운전수에게 몸을 허락하는 것을 목격하고 삼매는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세상 여자들이 다 제대로 딴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겉으로는 다 얌전한 채 안 그런 채 하지만 속은 제각기 따로 있는 것을 지금까지 삼매 자신만이 홀로 모르고 산 것만’ 같아 억울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삼매의 정조 관념에는 많은 변화가 생긴다.

대전과 김천에서의 경험이 삼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주고 이후 변화는 대구에서의 삶을 통해 개연성 있게 그려진다. ‘삼매의 인생관은 피난 이후 천양지판으로 달라졌다. 잘 먹고 잘 입고 마음에 드는 남자랑 정을 통하는 것. 이것이 그의 최대 욕망인 것이다.’ 이렇게 허영과 욕망의 끝을 향해가던 삼매에게 남편 학준이 나타난다. 삼매는 불의(不義)한 일을 겪을 때마다 늘 남편을 떠올린다.<sup>21)</sup> 삼매에게 남편은 ‘죄

21) 밤 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잘못을 고백했다. ‘학준 씨! 저는 죽일년이에요. 더러운 년이에요. 일선에서 돌아오시거든 적을 쏘던 총으로 이년을 쏘아서 죽여 주세요.’ (<별레먹은 장미>, 1953. 8. 24.)

삼매는 인섭의 포옹 속에서 환락의 하룻밤을 새고 나면 이튿날 아침은 펍 서글펐다. 이런 때면 반드시 또 남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런 사실들은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 그림자같은 불안감이 가슴을 설레게 한다. (<별레먹은 장미>, 1953. 8. 31.)

의식'의 근원이다. 남편은 학력, 인물, 재산 모두 별 볼일 없었지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하고 나라를 걱정할 줄 아는 건실한 청년이었다. 군인이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하던 남편은 결국 전투에서 부상당해 다리를 절단하는 불구의 몸이 된다. 서사의 한 축이 삼매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서사의 다른 한 축은 전면화 되진 않지만 삼매의 복잡한 심경을 통해 그리움과 두려움의 대상인 남편이 그려진다.

남편의 잘려나간 다리는 '도덕성의 기표'이다. 그것은 육체적 장애를 상징하지만 반대로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수성한다. 강학준은 신념이 강한 인물이다. 병역 기피를 권하는 아내에게 국민의 도리와 정의를 강변한다. 불구가 되었음에도 시대와 국가를 원망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보고 놀랄 부모와 아내를 걱정한다. 늘 마음 한 구석에 죄의식의 원천으로 남아있던 남편이 자신의 앞에 나타나자 삼매는 자신의 타락을 통절히 고백한다. 남편의 육체적 장애는 오히려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밝히는 거울이 되고 결국 삼매는 도덕성의 절대적 기표 아래 자살을 감행한다.

일반적으로 선정소설에서 일탈의 영역을 정화하는 방식은 당시 사회의 움직임, 민주적 개혁, 혹은 도덕성의 회복 등이다. 당대의 불량한 시대성을 육체적으로 체현한 특수화된 기표(여성인물)는 구래(舊來)의 보편적 가치에 의해 제거된다. 그러므로 선정소설은 결말에 이르러 강렬한 멜로드라마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 발생론적 측면에서 볼 때 멜로드라마는 비극적 전망이 효용성을 상실한 시대에 나타났다. 윤리와 미덕에 대한 전통적 질서가 급격하게 해체되고 '어느 곳 하나에도 기댈 곳 없이 무력하게' 던져진 사람들은 멜로드라마를 통해 시대의 완전성을 회복하려 하였다. 멜로드라마는 도덕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 경제적 혼란을 경험하는 선/악의 명확성이 사라진 시대에 종교를 대신해 재신성화(resacralization)에 대한 강렬한 욕망과 상상력의 결과로 집약된다.<sup>22)</sup>

22) 벤 싱어,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역, 문학동네, 2000, 202쪽.

이 소설은 선정성의 기표들을 다양하게 펼쳐 보임으로써 전후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보여주었지만 결말에 이르러 사회적 ‘악’을 파멸시키는 도덕성의 절대적 지표는 1950년대 멜로드라적 속성을 보여준다. 결국 이 소설은 인과응보라는 당위(當爲)적 결말을 통해 도덕적 우화를 선보인다.

<별레먹은 장미>의 상업적 성공은 동시대적 교감을 바탕으로 전후 1950년대 사회의 지향점과 일정한 호응관계에 있다. 이것은 1950년대 성공속도의 일면일 뿐만 아니라 전후소설에 나타난 부조리나 허무에 대한 독자들의 취향 규명을 위한 생생한 현장성을 갖는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별레먹은 장미>는 선정적인 측면들이 통속성 자체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작가의 진지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표면적으로는 성적인 것의 추구하고 파격적인 세태 설정을 통해 독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지만 이면에는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타매(唾罵)하는 새로운 교훈의 서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별레먹은 장미>는 1950년대 전후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세태소설을 넘어서 사회비판을 통해 휴머니즘을 고취하는 사회소설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이 작품이 선정성이라는 상업적 영합으로 대중들의 성적 편향을 노림한 것이 아니라 신문연재 대중소설의 창작방식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작가의 주제의식이 조화된 결과임을 최인욱 소설 전편과 연결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IV. 반(反) ‘그레삼의 법칙’, <청춘은 아름답다>

<청춘은 아름답다>는 1954년 9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신문』에 발표된 중편소설로 ‘인기작가 단편 릴레이’ 코너에 두 달 이상 연재되었다. 이 시기 작가는 신문과 잡지를 통해 왕성한 작품 활동을 수행하였



고 문단에서는 중견작가로 그 위치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 작품은 교원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는 작가의 자전적 체험이 바탕이 된 듯하다. 최인옥은 고등학교 교사, 대학교 강사로 교단에 선 경험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과 기억으로 교원으로서의 체험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단편소설에도 여러 편 있다.<sup>23)</sup> 이러한 일련의 소설들은 교원으로서 높은 자긍심, 아이들에 대한 사랑, 미래의 동력으로 자랄 아이들에 대한 낙관을 담고 있지만 교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사회의 불의한 요소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다. 이때 학교는 지성의 전당이 아니라 타락한 사회의 작은 축소판으로 그려진다.

이 소설은 두 달 동안 연재될 만큼 긴 중편소설로 주요 플롯은 ‘청춘’의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인물들(윤명숙, 이장수, 조병옥)과 ‘구시대’의 불의를 대변하는 인물들(나창혜, 김영만, 우순기) 간의 대립이지만 그 속에 윤명숙과 이장수의 연애를 부차 플롯으로 삽입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고취시켰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은 ‘그레샴의 법칙’이란 경제학 용어로 대변된다. 이 말은 체조선생 조병옥이 학교 임시 총담금 문제로 교장과 대립하던 허 선생이 면직당하고 이 사실을 윤명숙과 이장수 선생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인용한 말이다.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이란 16세기 영국의 재무관 T. 그레샴이 제창한 화폐 유통에 관한 법칙으로 소재의 가치가 다른 화폐(금화와 은화)가 동일한 액면가액의 화폐로 유통될 경우 소재의 가치가 높은 화폐(금화, 양화(良貨))는 사라지고 가치가 낮은 화폐(은화, 악화(惡貨))만 유통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법칙은 흔히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레샴 법칙의 역사적 근거는 이러하지만 경제적인 현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옳지 않은 것(不義)이 올바른 것(正義)을 밀어내고 득세하거나 좋은 일

23) 주인공이 학교 교원으로 등장하는 소설로는 <낙화부>, <초동기>, <여인기>, <김교수어록>, <막다른 골목> 등이 있다.

이 상황에 맞지 않게 오독될 때 은유적으로 사용된다.<sup>24)</sup>

<청춘은 아름답다>에서 악화(惡貨)는 여러 가지 학교 부정을 가리킨다. 먼저 교장은 학교 유지비라는 명목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수시로 충당금을 걷는다. 하지만 이 돈은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라비의 국회의원 출마비용으로 모두 사용되고, 학생들은 여전히 책상도 없이 비오는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고, 교납금과 충당금을 내지 못한 학생은 거리로 내쫓긴다. 도서주임은 출판사에서 뒷돈을 받기로 하고 부독본을 강매시킨다. 도서주임은 이전에도 여러 번 이 같은 일을 반복하여 철저히 자신의 양복이며 아내의 보석반지를 마련하였다. 훈육주임은 결혼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남자친구가 있는 여학생을 불러 훈계하며 해소한다.

이러한 일련의 학교 부정과 함께 악화의 다른 축을 형성하는 사회 부정으로 사업가 김영만이 있다. 김영만은 모든 부정과 불의의 집합체로 학교 원조를 빌미로 학교 부정을 대표하는 나 교장과 연결된다. 김영만은 자신이 임신시킨 여고생의 입막음을 위해 나 교장의 학교에 부정입학시키고 이것을 계기로 거짓 원조를 약속한다. 김영만은 일본무역을 한다고 속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들고 이것으로 다시 사기를 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논리에 따라 보면, 윤명숙은 과도한 학교 충당금으로 학생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자 이것은 교육 모리라고 비판하고, 개인적 편견으로 학생을 훈계하는 것에 대해 훈육주임과 열띤 논쟁을 벌이지만 결국 교장으로부터 많은 선생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중하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장수는 부독본 구입을 현재 학교 실정과 저급한 출판사 부독본의 상태를 들어 반대한다. 처음에는 이장수의 논리가 관철되는 듯 하다가 이장수 선생 반을 제외한 반에서 부독본이 강매되고 결국 이장수는 반정부적인 언사로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경찰국에

24) 오홍근, 『그레삼 법칙의 나라』, 이담북스, 2012, 294쪽.

호송된다.

악화에 의한 양화의 시련은 양화를 대표하는 윤명숙이 김영만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건으로 제시된다. 교장의 계속되는 학교 충담금 수거로 학교 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윤명숙은 자신의 뜻대로 학교를 운영해 보라는 김영만의 감언이설에 한껏 들뜬다.<sup>25)</sup> 여기에 겹쳐 교납금과 충담금을 내지 못한 학생의 자살 사건이 있고, 풍기문란 문제로 교장과 언쟁을 한 후 김영만을 전화를 받은 명숙은 바로 김영만을 찾아간다. 김영만은 일본에서 사온 갖가지 선물로 윤명숙을 유혹하고 늦은 밤 요정으로 인도하여 겁탈하려 한다.

하지만 결말은 경제학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시련을 당하던 양화는 양화의 가치를 드러내며 악화를 구축(驅逐)하거나 변화시킨다. 윤명숙은 절체절명의 순간 기지를 발휘하여 악화와 맞서고 악화의 실체를 알게 되자 나 교장을 찾아가 교육자로서 순리의 길을 함께 걸어 갈 것을 설득한다. 이장수는 학생의 투서로 경찰국에 불려갔지만 투서의 조작자가 도서주임임이 밝혀지면서 무혐의로 풀려난다.

악화와 양화의 대립이 세대적 대립으로 비추어 지는 것은 ‘청춘은 아름답다’라는 제목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악화를 대변하는 인물들은 구세대의 인물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의를 저지른다. 교원이나 사업가의 위치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감이나 도덕의식에 무감하고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돈벌이에 급급하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무능하고 현실 안주적 삶의 태도를 지닌다.

25) 윤명숙은 또 여러 가지 공상이 머리 속에서 구름뭉치처럼 몽글몽글 피어올랐다. ‘교육에 성의를 가진 이 신사를 유도하여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를 경영한다. 내가 젊은 나이로 학교의 주인이 된다. 내 머리 속에 있는 이상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그 중 우수한 학생은 장학금을 주어서 대학엘 보낸다. 외국 유학을 시킨다. 악질적인 교원을 축출하고 비양심적인 교원을 숙청하다. 교원의 생활을 보장한다. 그리하여 나는 드디어 한국의 페스탈로치가 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린다. 피가 뿜다. (<청춘은 아름답다>, 1954.10.15.)

반면 양화를 대변하는 인물들은 20세 안팎의 청춘을 대변하는 신세대 인물들이다. 이들은 사리분별이 뚜렷하고 상황에 굴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추진한다. 당대의 민주적 가치관을 기저로 자유롭고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지닌다. 이들이 구세대 인물들과 맞서는 무기는 영리(伶俐)와 기지(機智), 논리적 이성, 언행의 일치 등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 시대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좋은 기질을 대변하며 작가는 새 시대의 가능성과 발전적 미래, “민주적인 새 정신이 싹트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되는” 그 때를 그들을 통해 보여준다.

구세대 인물들과 신세대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대립적 속성은 ‘풍기문란’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통해 논쟁화된다. ‘풍기’(風氣)는 사회의 통념으로 규정되는 미풍양속(美風良俗)을 말하며 아름답고 좋은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당대를 이해하는 세대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에두아르트 폭스가 정의한 바, 풍속(風俗)이 경제적, 도덕적,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각 계급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역사적 실재이기 때문이다.<sup>26)</sup>

1950년대 전후 풍속은 ‘한국전쟁의 역설’을 추동하는 사회문화적 역동성을 대변하였다.<sup>27)</sup> 정치적 폐쇄성과 경제적 낙후성에 비대칭하는 전후 풍속은 식민지 잔재와 해방, 전쟁의 시간을 응축하고 풀어내는 가운데 제국주의 표상들이 각축을 벌이는 소용돌이였다. 시간의 세례와 지배 공간의 변화를 감내한 전후 풍속은 기성의 공리(公理)가 지배력을 상실한 가운데 새로운 세력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한 사회문화적 중심 의제였다는 점에서 전후 사회의 본질을 함축한다.<sup>28)</sup>

전후의 풍속을 대표하는 것이 댄스와 계(契)이다. 댄스와 계는 자체의 속성으로 볼 때는 취미 혹은 경제적 활동이지만 그것이 부도덕한 현

26) 에두아르트 폭스, 『풍속의 역사 I』, 이기웅·박종만 옮김, 까치, 1988, 1쪽.

27)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한국전쟁과 한국자본주의』, 한울, 2000, 51-55쪽.

28) 이봉범, 「한국전쟁 후 풍속과 자유민주주의의 동태」, 『한국어문학연구』 56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337쪽.

상의 발화점이 되면서 풍기(風紀)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특히 남녀 학생들 간의 교제, 남녀 평등의 문제를 풍기의 한 현상으로 다루고 있다.

<청춘은 아름답다>는 ‘풍기문란’을 쟁점으로 한문선생과 영어선생이 언쟁을 벌이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한문선생은 학생들에게 삼십년 전에 부르던 권학가를 부르게 하는 한 세기 전 인물이다. 한문선생은 학생들의 풍기문란이 남녀 간의 자유로운 이성 교제로부터 발발된다고 보고 학교에서는 도의 교육,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외출 삼가라는 대안책을 내놓는다. 한문선생의 논리에 교장과 훈육주임은 동의하는 반면 영어선생 윤명숙은 오히려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의 풍기문란을 더욱 조장한다고 보고 적극적인 이성 교제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대책을 내놓는다.

이 에피소드는 풍속의 관점에서 신·구 대립을 가시화한다. 구세대는 도덕과 윤리의 입장에서, 신세대는 자유와 평등의 입장에서 각자의 가치를 수성한다. 각각의 세대를 대변하는 가치들은 인간 삶의 질서와 관련된 부분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작품의 전체적인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이 작품은 청춘의 열정과 자유를 대변하는 양화적 인물들이 부도덕하고 현실 안주적인 구세대와 대립하여 사회적 선(善)을 추구하는 양상을 갖는다. 그러므로 ‘풍기문란’과 관련한 문제에서도 논리와 이론으로 무장한 신세대의 논리가 우위에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작가는 여기에 하나의 질문을 추가한다. 이는 확정 불가능한 세대에 대한 선배의 노파심이자 그 세대의 양가성을 꿰뚫은 어른의 시선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젊음, 열정, 청춘이 갖는 발전적 가능성은 긍정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를 서사의 곳곳에 노출시키고 있다. 청춘의 불완전함은 예측 불가능한 불안이다.

젊음, 청춘은 주체의 정당성을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함으로써 집단의 위계에 반항하는 자유로운 속성을 지닌다. 열정에 불타는 자기 의욕은

강한 행동성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발현시킨다. 이로써 새 시대의 신선한 생태를 건설한다. 하지만 이들의 발전적 속성은 반대로 기존의 사회 제도와 질서에 혼란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미풍양속의 파괴자이자 모랄리티의 붕괴자들이다.

이 작품의 강렬성은 청춘의 양가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여성주인공 ‘윤명숙’의 형상화에 있다. 윤명숙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엔 거침없이 당당하고 그 행동성에는 현대적 교양과 지성이 밀바탕 되어 있다. 세상을 정확하고 명랑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대로 구김살 없는 솔직한 태도는 많은 여학생들과 선생님들로부터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반면 50년대 문화적 취향을 당당히 향수하며 온몸으로 발산하는 젊음의 향기, 자유, 신선함 등은 당대의 아프레 걸을 연상시킨다.<sup>29)</sup>

윤명숙은 모든 선생이 퇴근 후 이장수와 교직원실에서 과감히 댄스의 향연을 벌인다. 댄스는 건강에 좋고 기분을 정화하는 신성한 오락이라는 논리에 따라 체조선생의 반주에 맞춰 댄스를 추는 장면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장소를 감안해 볼 때 가히 충격적이다. 다방에 앉아 자유롭게 맞담배를 피는 장면이나 데이트 중 계곡에서 나체로 먹을 감는 장면 등은 모두 아프레의 자유분방함의 이면에 도사리는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기질을 보여준다. 아프레 걸은 전후의 풍속 내에서 기성 질서, 가치체계와 구별되는 세대군으로 전후 사회적 병리현상을 보여주는 ‘부정적 속성’으로 대변되었다. 여성 주인공 윤명숙에 대한 서사내 양가적 시선은 1950년대 갑자기 불어 닥친 자유, 민주에 대한 당대적 반응을 응축한다.

이 작품은 당대 사회의 전체 지형도를 세대 대립을 통해 그려낸다. 세대의 속성을 대변하는 가치와 그것의 상대적 대립을 통해 전후세대의

29) ‘아프레 걸’은 전후파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아프레게르(apres-guerre)에서 파생된 말로 전후파 여성을 의미한다. 아프레 걸은 미국문화의 영향으로 도시에 사는 20대 전후의 여성 특히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으로서 세대적 의미를 지닌다. 김현주, 「‘아프레 걸’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 『한국의 문예비평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학회, 2006, 316쪽.

가치혼란을 형상화하고 각각의 세대는 일정한 세력과 영향력을 지니면서 사회전반에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sup>30)</sup> 이 작품에서는 이 세력의 균형이 신세대로 약간 기울는 듯 보이지만 젊은 세대 내에 존재하는 양가성을 보여줌으로써 세력의 균형을 조정한다. 전후 사회에서 청춘의 가치를 대변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사상은 사회를 재건하는 모토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성을 담지한다. 발랄하고 명랑한 현대적 기질과 행동의 능동성은 전후 반공국가의 양성과 사회의 재건을 위해 국가적으로 고무된 사상이다. 반면 이들의 젊음과 열정은 다분히 즉흥적이고 유동적이어서 불안정하다. 제도화와 정상적인 규제들을 무력화시키는 민주와 자유는 사회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국가 붕괴를 조장하는 비정상성으로 인식됨으로써 역설의 민낯을 드러낸다.

## V. 나오며

본고의 연구 취지는 한국 현대문학의 결과 색을 풍부히 더하는 기반 작업으로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결실된 텍스트를 복원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최인욱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작품 발굴은 늦은 감이 있지만 성실히 작가적 직분을 수행한 무명작가에 대한 정당한 예우일 것이다.

작가 최인욱은 35여 년의 짧지 않는 문단생활 동안 1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작가는 당대의 세대적 소재를 활용하여 표현의 다양성을 꾀하였지만 강렬한 도덕적 인간상에 대한 믿음과 휴머니티를 통해 일관된 세계관을 보여주었다. 본고에서는 작가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1950년대 신문에 연재된 중편소설 두 편을 발굴하였다. 이 시기 최인욱의 신문연재 중편소설의 발굴은 한국 전쟁기 신문소설의 발굴이라는 목적과

30) 이봉범, 앞의 논문, 357쪽.

퀘를 함께 하며 1950년대 문학작품의 전모를 밝히는데 의미있는 지점을 마련할 것이다.

<별레떡은 장미>, <청춘은 아름답다>는 1950년대 작가의 대표작이자 최고의 인기작임에도 저급한 통속소설이라는 굴레로 지금까지 문단 내외적으로 외면을 받아왔다. 하지만 시비(是非) 뒤에 숨겨진 작가의 날카로운 주제의식은 두 작품의 새롭게 보기를 요한다.

<별레떡은 장미>는 ‘젊은 부인의 성적 타락’이라는 음란성을 서사의 기표에 장착한다. 선정소설, 외설소설이라는 당대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하지만 이때의 선정성은 통속성 자체에 함몰되지 않고 공포, 광기, 범죄와 같은 당대 사회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무질서한 힘들을 가시화 함으로써 사회구조를 구체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 군상들이 직조해 내는 사회적 불의와 세태,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타매(唾罵)하는 새로운 교훈의 서사로 나아간다.

<청춘은 아름답다>는 당대 사회의 전체 지형도를 세대 대립을 통해 보여주었다. ‘악화(惡貨)는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논리에 따라 악화는 학교부정과 사회부정을 저지르는 구세대를, 양화는 영리와 기지, 논리적 이성으로 이에 맞서는 청춘세대, 신세대를 대변한다. 세대의 속성을 대변하는 가치와 그것의 상대적 대립을 통해 전후세대의 가치혼란을 형상화하고 각각의 세대는 일정한 세력과 영향력을 지니면서 사회진반에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작품에서는 세력의 균형이 신세대로 약간 기울어 보이지만 젊은 세대 내에 존재하는 양가성을 보여줌으로써 세력의 균형을 조정한다.

최인욱의 이 두 작품은 작가의 개인적 이력으로 볼 때 초기소설에서 중기소설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표된 것으로 주제의식의 성숙을 보여주며 향후 장르적 변화를 예고하였다. 이는 작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의미있는 작품들이지만 한국전쟁이후 신문소설의 특성과 그 발전 가능성



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김동윤은 1950년대 신문소설의 소설사적 위상을 세태소설의 발전적 계승, 대중소설의 본격적 발화, 제한적으로나마 당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았다.<sup>31)</sup> 이 두 작품은 1950년대 신문소설의 특징을 응축하고 전후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세태소설을 넘어서 사회비판을 통해 휴머니즘을 고취하는 사회소설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31)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209쪽.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최인욱, <벌레먹은 장미>, 『서울신문』, 1953.8.20-9.25.  
\_\_\_\_\_, <칭춘은 아름답다>, 『서울신문』, 1954.9.12-11.1.

### <논문 및 저서>

- 강준만, 『대중문화의 겉과 속』, 한샘출판사, 1997.  
김동선, 「해방 직후 『매일신보』의 성격변화와 『서울신문』의 창간」,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제63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155-200쪽.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김현주, 「‘아프레 곁’의 주체화 방식과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의 구조」, 『한국의 문예비평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학회, 2006, 315-335쪽.  
방금단, 「작가 최인욱의 생애와 작품세계」, 『돈암어문학』 24집, 돈암어문학회, 2011, 221-250쪽.  
벤 싱어,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역, 문학동네, 2000.  
서광운, 『한국신문소설사』, 해돋이, 1993.  
앨리스 페인 해케트·베르너 파울슈티히, 『베스트셀러의 진실』, 이임자 편역, 경인문화사, 1998.  
에두아르트 폭스, 『풍속의 역사 I』, 이기웅·박종만 옮김, 까치, 1988.  
오홍근, 『그레샴 법칙의 나라』, 이담북스, 2012.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 29집, 반교어문학회, 2010, 261-305쪽.  
이봉범, 「한국전쟁 후 풍속과 자유민주주의의 동태」, 『한국어문학연구』 56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335-387쪽.

- 장정희, 『선정소설과 여성』, L.I.E., 2007.
- 조연현, 「해방 후 창작계의 제양상(2)」, 『조선일보』, 1957.8.20.
- 진선영, 「전통적 세계 지향과 도덕적 인간학」, 『겨레어문학』 제48집, 겨레어문학회, 2012, 223-247쪽.
- 최영석, 「1950년대 한국 신문의 성격에 관한 연구」, 『원우론집』 제16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9, 209-236쪽.
- 최인옥, 『최인옥 소설 선집』, 진선영 엮음, 현대문학, 2012.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하), 국학자료원, 2006.
- 한명환, 「한국 전쟁기 신문소설의 발굴과 문학사적 의의」, 『현대소설연구』 20, 현대소설학회, 2003, 127-150쪽.
- 한원영, 『한국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상)(하), 국학자료원, 1999.

<Abstract>

## Study of medium-length serial story in newspaper written by Choi, In-wook

Jin, Sun-Young\*

It is true that modern Korean literature has literary accumulation and noticeable success, but there are still existed vanished works regardless these abundant results. Therefore, to find out unknown writers and to restore the vanished works have being proceeded with regrets about the bias of literal studies and changes of paradigms in new era. With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researches Choi, In-wook's 1950's serial story in newspaper.

The <Tainted Rose> was serialized on Seoul Daily from 20th of August to 25th of September in 1953. This story is exposed physical acts and goes extreme sexually suggestive with fear, crime and madness that were released in the terms of social trends at that time. However, this deviation is removed through universal valuation, that is, moral recovery, and has melodrama's attributes. Seeking sexual things and preposterous plots in the story arouse interest, but on the hidden side, to show everything plainly appeals insulted new moral lesson.

The <One's youth is beautiful> was serialized on Seoul Daily from 12th of September to 1st of November in 1954. This work's theme consciousness shows Gresham's Law such as 'Bad money drives out

---

\* Ewha Womans University

good money!'. In this story, Bad money represents old generations; commit illegal things in school and community and good money represents new generations who against old generations with smart, tactful and logical intellects. The value indicated attribution of generation and its against made anomie, each generation owned steady power and effect, and coexisted in whole society in the same age. The balance of power inclined to the new generations in this story, but showing both sides in new generations controlled the power balance, again.

These two Choi, In-wook's stories were published on his early works to the middle. These two works predicted his genre changes later and showed maturing his theme consciousness. These two stories carried on social stories' function to stimulate humanism through social criticism and were beyond the stories that reflected social conditions around 1950's post Korean War period.

Key Words : Serial Novels in a Newspaper, Popular Novels, Obscene Novels, Sensation Novels, Melodrama, Gresham's law, Custom, Generation debate, Apres-Girl.

■ 논문접수 : 2013년 2월 28일

■ 심사완료 : 2013년 3월 20일

■ 게재확정 : 2013년 4월 4일